

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Script

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You look pale. What's the matter?

- A. It's easy for me to solve this problem.
- B. I put on my hat.
- C. I'm so tired.

당신 창백해 보여요. 무슨 일이죠?

- A.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제겐 쉬운 일이에요.
- B. 저는 모자를 썼어요.
- C. 너무 피곤해서요.

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I'm +분사형용사 의 문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I'm so exhausted!"

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Lisa: You look pale. What's the matter?

Lisa: 당신 창백해 보여요. 무슨 일이에요?

Young: I'm so exhausted!

Young: 너무 피곤해서 그래

Lisa: Was it that hard? Let me give you something to drink.

Lisa: 그렇게 힘들었어요?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게요.

Young: Thanks. You are the best.

Young: 고마워. 역시 당신이 최고야.

강의 보기 - Small Talk

☞ Young은 불친절한 고객의 전화를 받고 전화상으로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지만 전화를 끊은 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친다. 옆에 있는 동료의 말이 위로가 되려나?

Dialogue - 1

Young: I'm so annoyed. I can't say a word.

(Young: 정말 화가 치밀어.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.)

Lisa: Forget about it.

(Lisa: 잊어버려요.)

☞ 다음 날 어제 불친절하게 말했던 그 고객이 찾아왔다. 옆에 있던 동료는 미리 알아보고 인사를 찌푸린다. 그러나 용감한 우리의 Young!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갑게 인사한다.

Dialogue - 2

Young: I'm so pleased to meet you.

(Young: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)

Lisa: I'm pleased to meet you, too.

(Lisa: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)

☞ Young은 덜렁대는데 선수다.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휘파람 불며 돌아오는데 한 여사원이 귓속말로 Young에게 뭔가를 말해주는데……

Dialogue - 3

Lisa: You'd better zip it up.

(Lisa: 지퍼 올리세요.)

Young: Oh, my! I'm so embarrassed.

(Young:오 이런! 정말 당황스럽네.)

One more Tip!

'embarrassed' 와 'shy' 의 차이?

I was so embarrassed. : 정말 창피했어요.

I'm (She's) so shy. : 나는 (그녀는) 부끄럼을 잘 타는 성격이에요.

embarrassed 는 성격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창피할 때 쓰는 말

shy 는 성격을 말할때 쓰는 말

You're so embarrassing. : 너 정말 사람 창피하게 하는구나.